

#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한글학교 기금마련 골프대회

## 코로나19로 닫았던 한글학교 다시 활짝 열자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한글학교 기금마련 골프대회 참가자들 모습(사진 왼쪽). 본당 부임(본지 7월10일자 3면 참조) 후 열린 첫 공식 행사에서 김순진 요셉 주임신부가 챔피언 박흥배에게 트로피를 건네며 축하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주임 김순진 요셉 신부)는 주임신부 배 한글학교기금마련 골프대회를 지난 6월26일(일) 오후 1시, 본당 근처 첼튼햄에 위치한 멜로스 컨트리클럽(Melrose Country Club)에서 열었다.

햇볕은 짙고 무더웠지만 우거진 숲속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했다. 골퍼들은 펜데믹으로 잔뜩 움츠렸던 본당 행사가 새 신부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됐다며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2019년 6월, 골프대회를 끝으로 3년만에 열린 이날 총 115명이 참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샷건으로 채점은 캘러웨이 방식으로 산정해 치뤄졌다. 150에이커가 넘는 광활한 대지 위에 18홀(파 70) 6002야드의 멜로스 컨트리클럽은 1947년 앨리스터 맥켄지와 페리 맥스웰(Alister Mackenzie & Perry Maxwell)이 디자인했으며 비교적 페어웨이는 좁고 러프는 깊은 편이며 높은 언덕과 숲이 우거지고 그린도 굴곡이 심해 정교한 샷이 요구되는 어려운 코스로 알려져 있다.

김순진 신부는 인사말에서 “지난 6월15일 이곳에 부임해 첫 행사로 열리는 골프대회에 많이와 주셔서 감사하고 필라델피아 성모마리아 성당 유정규 미카엘 신부님과 신자들도 참여해 주셨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특히 이번 한글학교 기금마련 골프대회

에 많은 업소와 단체 및 개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기금을 발판으로 코로나19로 닫았던 한글학교를 다시 열고 전문직 교사들을 보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낙후된 시설을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찬미 가비노 보좌신부의 지도로 사목회장 신유승 가밀로와 변용천 요한 부회장은 3개월 동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사목회와 아퀴나스 청년회가 분담해 본부식, 경기 운영, 음식 준비로 새벽부터 나와 봉사에 적극 참여했고 성당과 골프장을 수없이 오가며 점심에는 김밥과 스낵, 저녁식사 후에는 설거지와 청소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경기 후 지하 친교실에서 각 업체에서 후원한 생필품을 놓고 복권추첨으로 흥을 돋구었으며 시상식에서는 각 조별로 골퍼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근접상에는 4번홀(파 3)에서 홀컵에 바짝 붙었던 박희중이 오디세이 퍼터를, 장타상은 12번홀(파 4)에서 288야드를 친 남자부 김영철, 여자부는 225야드를 날린 조신다가 200불 상당의 색안경을 차지했다. 챔피언에는 박흥배가 73타로 맹타를 휘둘러 트로피와 상품 65인치 필립스 TV를 거머쥐었다.

양경숙 명예기자